



2016 민중총궐기

가자! 서울로, 11월 12일(토)



노동자 총단결로, 자본정권 끝장내자!

대전충북지부, 금속 조합원 동지여러분!

박근혜대통령의 무능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며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던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책임을 박근혜대통령의 무능과 최순실의 케이트로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미르-K재단이 재벌에게 수백억의 돈을 거두어들이면서 재벌에게 약속한 뒷거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재벌은 국정농단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재벌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비리가 내부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밝혀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양파껍질처럼 하나, 하나 벗겨지고 있습니다. 더 밝혀져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들은 여기서 덮으려 할 겁니다.

재벌들이 미르-K재단에 돈을 바치면서 아무런 대가없이 주었다고 믿는 이 없습니다. 공공/의료 민영화, 노동법 개악, 일반(쉬운해고), 성과퇴출제 등 재벌에게 이득을 챙겨주고자 하는 거래를 끊임없이 했으리라 봅니다.

유성 노조파괴의 경우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조컨설팅, 유성기업 회장을 불러 지시한 불법정황이 드러났는데 현대자동차 관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기아차는 미르-K재단에 128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 처벌은 안 됩니다. 재벌의 권력구조를 박살내는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선실세들의 처벌만으로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하야)만으로 안 됩니다. 이 땅의 권력을 돈으로 주물리고 있는 재벌들의 처벌 없이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노동자-민중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재벌을 그냥 두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허구일 뿐입니다.

유성투쟁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6년의 투쟁에서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의 불법을 밝혀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지시를 밝혀냈습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고, 어용노조 무효화도 승소했습니다. 한광호열사의 산재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성의 노조파괴는 진행형입니다. 이는 노조파괴 주범들의 처벌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 서울로 외치러 갑시다.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한통속이다! 재벌권력 박살내자!

작년 11월 14일, 우리는 10만의 조직이 모여 민중총궐기를 힘차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감옥에 계시지만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1년 후,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년 동안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양대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무력화 투쟁, 노조파괴(유성, 갑을) 저지투쟁, 한광호열사 투쟁, 많은 투쟁에서 정권과 자본의 결탁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의 비선실세 정국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쟁취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자본의 권력을 통제하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이 얼렁뚱땅 수습해서 다시 자본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정권 창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정국이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반전되는 정세를 막아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11월 12일, 서울시청 광장으로 노동자-민중의 힘을 모읍시다. 11월 12일(토)에는 대전충북지부 전조합원이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에 갑시다.

자본의 권력을 박살내는 투쟁, 반드시 쟁취합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드림

